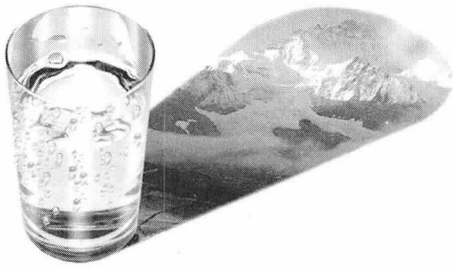


수돗물도 물쓰듯 해서는 안된다?

김 동 진*



1. 머리말

우리가 흔한 물건을 마구 쓸 때 흔히 '물쓰듯 한다'고 표현한다. 우리 인식에서 물이 그만큼 흔하고 값어치 없게 자리잡고 있다는 단적인 표현일 것이다.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인간생활에서 물만큼 귀중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물이 '제값'을 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적 표현을 빌자면 물은 너무나 풍부한 재화이므로 한계효용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물이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재화이기 이전에 '생명재'이기 때문에 물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쓸 물이 많을 때는 별 가치가 없게 느껴질지 몰라도, 마실 물도 부족한 때가 오면 물의 가치는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수돗물 소비실태

요즘 사회분위기를 보면 온 국민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뭐든 절약할 수 있는 방도를 궁리해 내는데 열중한 것 같다. 최근의 매우 악화된 경제사정 탓일 것이다.

얼마전 한 라디오 프로에서 수돗물 절약에 관하여 한 청취자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한 독일 가정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저녁 식사후 고마운 마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더니 극구 사양하더라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란 것이, 우리나라 가정 주부들은 설거지를 할 때 대부분 수도꼭지를 튼 채로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물이 마구 낭비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일화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최근 10여년간 서울시의 가정 수돗물 소비량 증가 추이를 보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한 1980년대말부터 수돗물 소비량이 급격히 는 것을 알 수 있다.

〈 생활용수 1인당 소비량 비교 〉

(단위: l/인/일)

구 분	한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소비량	207	132	131	147	236

*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 생활용수 1인당 소비 추이(서울시) 〉

(단위: l/인/일)

구 분	1985년	1987년	1990년	1995년	1996년
소비량	142	148	180	207	213

3. 정책방향

변기 물탱크에 펌트병 넣기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가. '98년도 추진방향

정부는 수돗물 아껴쓰기를 올해의 상수도분야 주요시책으로 정하고 정부 및 언론, 민간단체 합동의 물 절약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모든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절수형 양변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구조적·제도적 측면에서 물 절약을 유도 할 수 있는 절수시책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청소년 및 사회각층을 대상으로 한 절수교육 실시

학교에서는 교과시간이나 과외활동을 통하여 물 절약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학생들을 인근 정수장이나 댐 등 수도시설에 초청하여 수돗물 생산과정 및 물의 중요성에 대한 체험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PC통신, 생활정보지,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수요령을 지속 홍보하고, 물의 날을 전후해서는 절수형 수도설비에 관한 전시회 개최, 절수에 관한 학술발표회 개최 등을 통하여 물 절약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높여갈 계획이다.

나. 모든 공공건물에 절수설비 설치유도

우선 '98년말까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 건물의 재래식 수도설비를 절수형으로 전환·교체할 예정이다. 신축 건물은 반드시 절수형 자재를 설비토록 하고, 이미 설치되어 절수형으로 교체가 어려운 양변기의 경우는 물탱크에 펌트병이나 벽돌 넣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교육을 활용하여 물 절약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직자 가정에서의 물 절약 실천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4. 국내외 물 절약 사례

제주도는 작년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꼭지용 절수디스크 보급운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는 제주도 가정의 수도꼭지는 대부분이 절수형으로 바뀌었다. 제주도의 한 목욕탕의 경우 수도설비를 절수형으로 교체한 결과 교체전에 비해 월 평균 73만원, 연간 8백7십여만원의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시공아파트 전체에 기존보다 물 사용량을 30% 줄일 수 있는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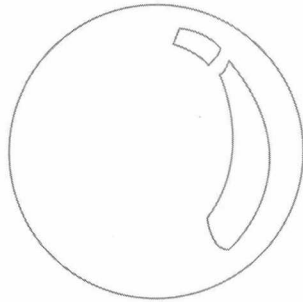
다. 절수형 수도설비 사용 확대

정부는 '98. 3. 1부터 모든 신축건물에는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목욕탕, 숙박업소, 대형빌딩 등 물 다량 사용업소에는 절수설비를 사용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해서는 절수설비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양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96년부터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매년 학생, 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물 절

약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92년부터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현재 수준에 비해 물 사용량을 15% 줄인다는 목표하에 물 절약 홍보 및 교육 등 각종 절수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뉴욕시의 경우도 건축법을 개정하여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에서 절수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절수 안내자료 및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맺음말

3천원하는 커피 한잔 값이면 4인 가구가 9일간 수도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물 값은 생산원가의 77% 수준인 1톤당 307원인데, 이것은 미국 등 선진국의 물값에 비해 10~30% 수준 밖에 안 되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물값이 싸다고 해서 물이 낭비된다면, 물값도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에 대한 인식과 생활태도이다.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양치질 할 때 컵을 사용하는 조그만 실천이 연간 4백억원의 수도물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화장실 양변기 펌트병 하나가 연간 200억원의 수도물 생산비용을 줄인다. 이제는 수도물도 물쓰듯 하는 습관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

